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오늘의 발표는
이그나이트
방식으로!

한 가지 주제를
20장 슬라이드로
X 15초씩
= 5분 이야기하자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 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사회

오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한국성폭력상담소)

세션1. 사건 속으로

1심의 문제 분석

차혜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현실 속 위력의 법적 판단

김두나 (피해자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성인지감수성 이전에 진술이 있었다

서혜진 (피해자 변호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직장 내 사건과 '증인들'의 역할

정혜선 (피해자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정치인 정무직의 노동

이보라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현 보좌관)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과 동행

배복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대위 액션 및 시민참여 활동

닷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한국여성의전화)
감사한 분들에게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발표자들

매이 (트위터 안희정 성폭력사건 아카이브
운영진)
진명선 (한겨레 젠더미디어 슬랩 편집장)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보통의 승리”

1심의 문제

차혜령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www.kpil.org



안희정 ✓

2018년 3월 5일 · 🌐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안희정 올림

“부부 자는데 김지은 들어와” 안희정 부인 증언 예고

중앙일보 2018. 7. 12.

안희정 부인 민주당씨 오늘 증인석에...어떤 말 할까

뉴스 1 2018. 7. 13.

“김지은 직접 호텔 예약” 증언...안희정 부인

한국경제 2018. 7. 12.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남편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생각”

조선일보 2018. 7. 13.

“김지은이 도지사 좋아했다”는 안희정 측근

노컷뉴스 2018. 7. 11.

#미투가 바꾸는 세상

반격 나선 안희정...증인 “안희정·김지은 격의없이 대화, 깜짝 놀랐다”

한국일보 2018. 7. 11.

【1심의 문제 분석】_차혜령

보도자료

2018.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

담당자

김민정 판사(공보관)

☎ 02-3271-1098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다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①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였는지, ②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③ 위력의 행사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④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임
-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성폭력의 개념에 관한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고려하되, 법적 판단에서는 죄형법정주의 등 원칙을 준수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과, 증거 판단시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적 고려가 필요함을 전제로 판단에 이르렀음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해석과 판단”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해석과 판단”

“‘No means no rule’ 혹은 ‘Yes means yes rule’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이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문제”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

“...피해자는 성적 주체성을 갖추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지하면서
자기 책임 아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피해자가 Z에 대해서는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 대상과의 관계적 특성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선택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마저 있다.”

피고인

“미투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시민 vs 1심 법원

“위력은 소리내지 않는다”

“안희정의 ‘가해자다움’, 김지은의 ‘피해자다움’”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묻지 않았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권력이 만든 무죄”

“‘안희정 무죄’의 세 가지 위력”

“위력이란 무엇인가”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현실 속 위력의 법적 판단

김 두 나

피해자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전 충청도지사 안희정 성폭력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일시 장소 2019. 09. 09 (월)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주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업무상 위력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함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하는 관계에 내재하는 차별과 폭력의 위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하는 관계에 위력이 작동하는 방식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

-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 피해자의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506판결, 2008.2.15 선고 2007도11013판결 등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 기준

-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 피해자의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공기처럼 존재하는 위력을
고려해야

대법원1998123선고97도2506판결2008215.선고2007도11013판결 등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의 위력 성폭력 판단

- 공기처럼 존재하는 위력이 성적 행동을 할 때라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지 않음
- 업무상 위력 존재하는 관계에서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확인될 필요**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의 위력 성폭력 판단

- 공기처럼 존재하는 위력이 성적 행동을 할 때라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지 않음
- 업무상 위력 존재하는 관계에서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확인될 필요

1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되지 않았다”**

1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되지 않았다”

도지사와 수행비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위력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물이해를 드러냄

2심

업무상위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면밀히 포착

-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계적 관계
-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의 업무 및 상황
- 범행 당시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을 가졌는지 여부
-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2심

업무상위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면밀히 포착

-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계적 관계
-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의 업무 및 상황
- 범행 당시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을 가졌는지 여부
-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2심

업무상위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면밀히 포착

-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계적 관계
-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의 업무 및 상황
- 범행 당시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을 가졌는지 여부
-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2심

업무상위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면밀히 포착

-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계적 관계
-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의 업무 및 상황
- 범행 당시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을 가졌는지 여부
-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2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수행비서로서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추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의 의미

- 업무상 위력 관계에서의 피해자의 경험과 상황을 고려하여
- 업무상 위력이 성폭력 발생에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 그러한 행위는 우리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성인지감수성” 이전에 증거(진술)가 있었다

서 혜 진

피해자변호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간의 차이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권력 불균형 등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 대한 당연한 배려이자 공감능력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법률상 전혀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판결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말만 들어 주는 것이다?

—



우리 법률과제도 속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성주류화조치(제14조), 성별영향평가(제15조),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제16조~제18조)

성별영향평가제도(성별영향평가법), 성인지 예산제도 등 정책과 입안에서도 이미 사용되어 온 개념



우리나라 대법원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우리나라 대법원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개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님

대법원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어떤 의미일까?

법원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권력관계 등)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기존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심리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자 반성의 의미**가 있음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사건의 유일한 판단기준인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비난,

성인지 감수성 이전에 “증거”!

‘성인지 감수성’ 본격 논란...모호한 개념→해석 제각각

‘성인지 감수성 잃지 않아야’...안희정 무죄 뒤집은 한마디

지난해 대법원 첫 기준 제시
판사 재량 커 '복불복' 우려도

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5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자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늘어나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

2018년 4월12일	대법원 최초 판결
2018년 5월~9월	10건
2018년 10월25일	대법원 2차 판결
2018년 11월~현재*	45건

*2019년 4월 10일 기준.

1년간 57건 중 56건 피해자 勝



【성인지 감수성 이전에 진술이 있었다】_서혜진

이 사건 유죄 판결의 근거

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④ 피해자가 피해를 밝히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⑤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라 엄격히 판단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구체성
+
일관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총 10가지이며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추가 증언, 그리고 구체적 물증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 이후 더 이상 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전임 수행비서 B의 조언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언론이라 생각하여 언론을 만났는데 즉시 피고인과 G를 비롯한 그 측근들로부터 연락이 와 신변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커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이고

J기자에게 “제가 중요한 건 단순 모욕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처벌이고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기사화에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부디 보안 지켜주세요,” “만일 수사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되지 않는다면 일체의 보도, 정보공유도 원하지 않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문 발췌)

그리고 **피고인 진술의 모순과 비합리성**

+α

“성인지 감수성”,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중거재판주의와 배척되는 것이 아닌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모두 함께 발전되어야 하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심리 기준!

“성인지감수성”,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왜곡된 상에서 탈피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과정의 중요성 인식

“성인지감수성”,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

피해자가 처한 상황,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 권력의 불균형, 피해를 입게 된 경위,
사건의 전체적 맥락 등 **충분한 심리가 필요함**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는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세력을 가진 행위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위력으로써 간음추행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피고인 유죄

“성인지감수성”,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주장과 진술의 합리성 및 신빙성 판단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재판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W I T N E S S E S

직장 내 사건과 '증인들'의 역할

정혜선 변호사



피해자가 아닌 증인들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17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 (가명), 신 ○○, 김 ○○ (가명)의 각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여 ○○, 신 ○○의 각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의 당심 법정진술, 증인 정 ○○, 구 ○○의 각 원심 법정진술

수행비서라는 업무의 특수성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다”

유죄의 결정적 증언들

위력의 맥락



“따뜻한 분이기도 했지만, 격의없이 지낸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

“ TV나 언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따뜻한 미소나 표정이지만,
질책할 때는 눈빛이나 분위기 자체가 사람을 위축감을 들게 합니다 ”

“ ”

“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묵언의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뭔가 얘기를 해도 대꾸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와 그 상황과 그 공기만으로 상대방을 혼내기 때문에...”

“숙박 출장에서 지사님을 방으로 모셔다 드린 이후에
비서를 찾는 경우는 매우 잦은 일”

“술, 담배,
라이터”

식당예약
호텔예약

“.....”

전화착신
텔레그램

주말, 휴일 야간 24시간



노 동

피해자가 했던 돌봄과 챙김은 피고인에 대한 혐모, 연정, 호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노 동

피해자가 했던 돌봄과 챙김은 피고인에 대한 혐모, 연정, 호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A,B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대 법 원 판 결 문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 사실을 들었다” 는 증인 A,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뭔가 심장이 덜컥하면서... 만약 사건이 잘못 흘러갔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고 스스로도 **회피**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솔직히 **무서웠고**, 묻지도 못했고, 도와줄 방법도 없었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무래도 말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들어가지 말라는 말밖에 없었고 사실 비서를 불렀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회피용으로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비서실 안은 **권력구도, 경쟁구도**로 되어 있고, 다들 지사님만 바라보
고 쳐다보고 있는데 지사님이 나쁜 짓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조상 쉽지 않았을 것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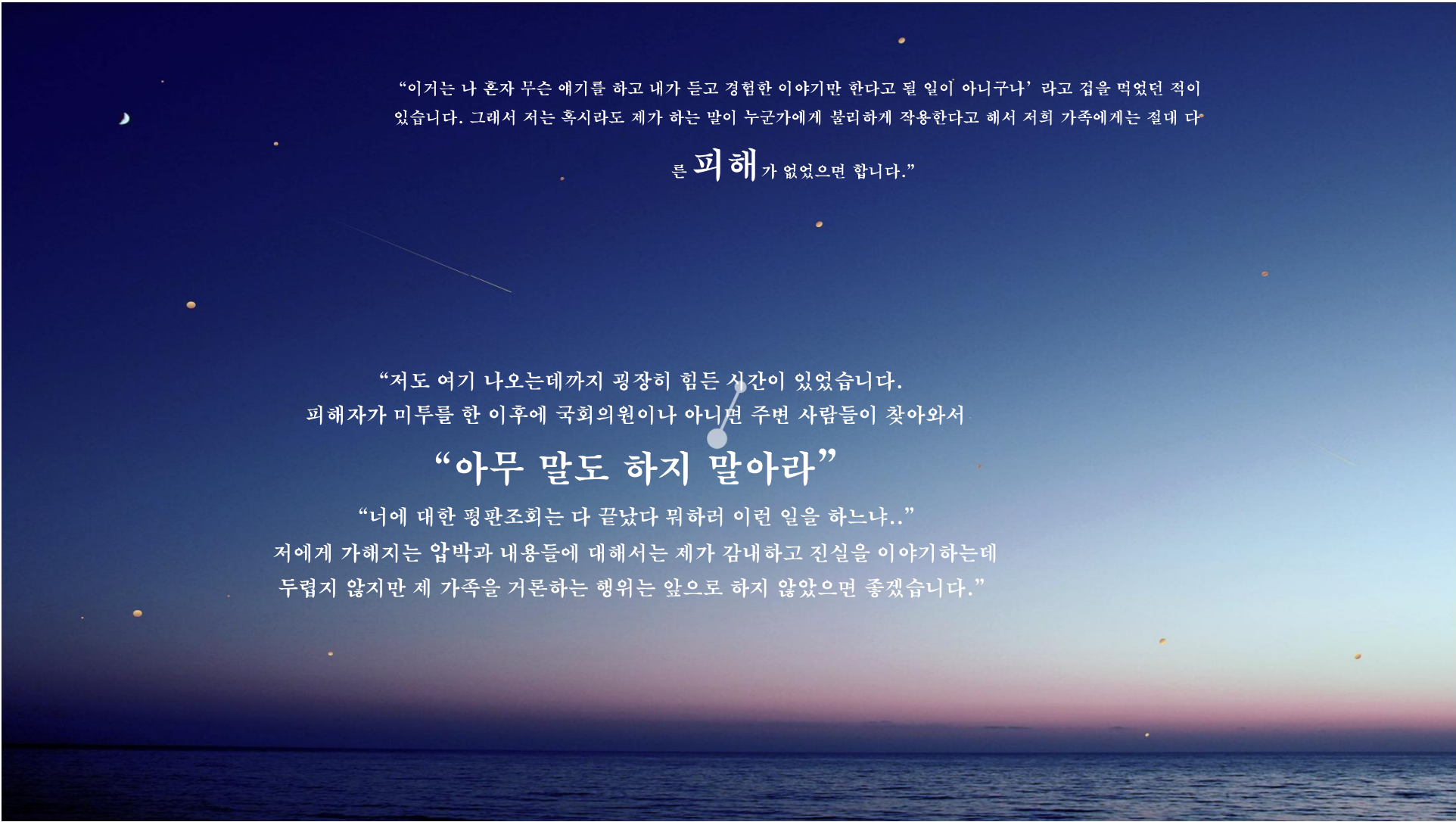
“뭔가 심장이 덜컥하면서... 만약 사건이 잘못 흘러갔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고 스스로도 **회피**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솔직히 **무서웠고**, 묻지도 못했고, 도와줄 방법도 없었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무래도 말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들어가지 말라는 말밖에 없었고 사실 비서를 불렀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회피용으로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비서실 안은 **권력구도, 경쟁구도**로 되어 있고, 다들 지사님만 바라보
고 쳐다보고 있는데 지사님이 나쁜 짓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조상 쉽지 않았을 것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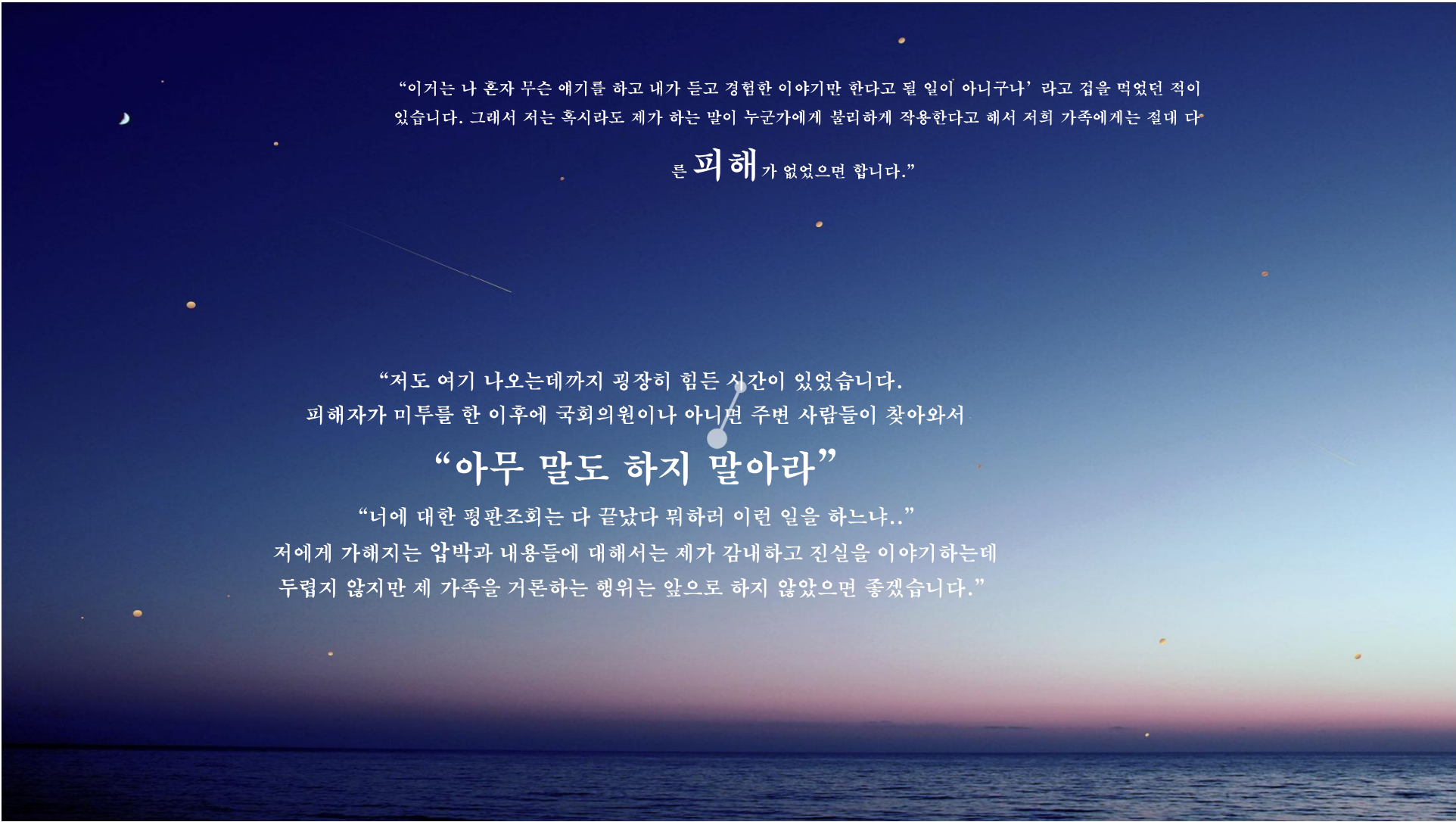
“이거는 나 혼자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듣고 경험한 이야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겁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저희 가족에게는 절대 다

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여기 나오는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투를 한 이후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에 대한 평판조회는 다 끝났다 뭐하러 이런 일을 하느냐..”
저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내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두렵지 않지만 제 가족을 거론하는 행위는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 혼자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듣고 경험한 이야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겁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저희 가족에게는 절대 다

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여기 나오는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투를 한 이후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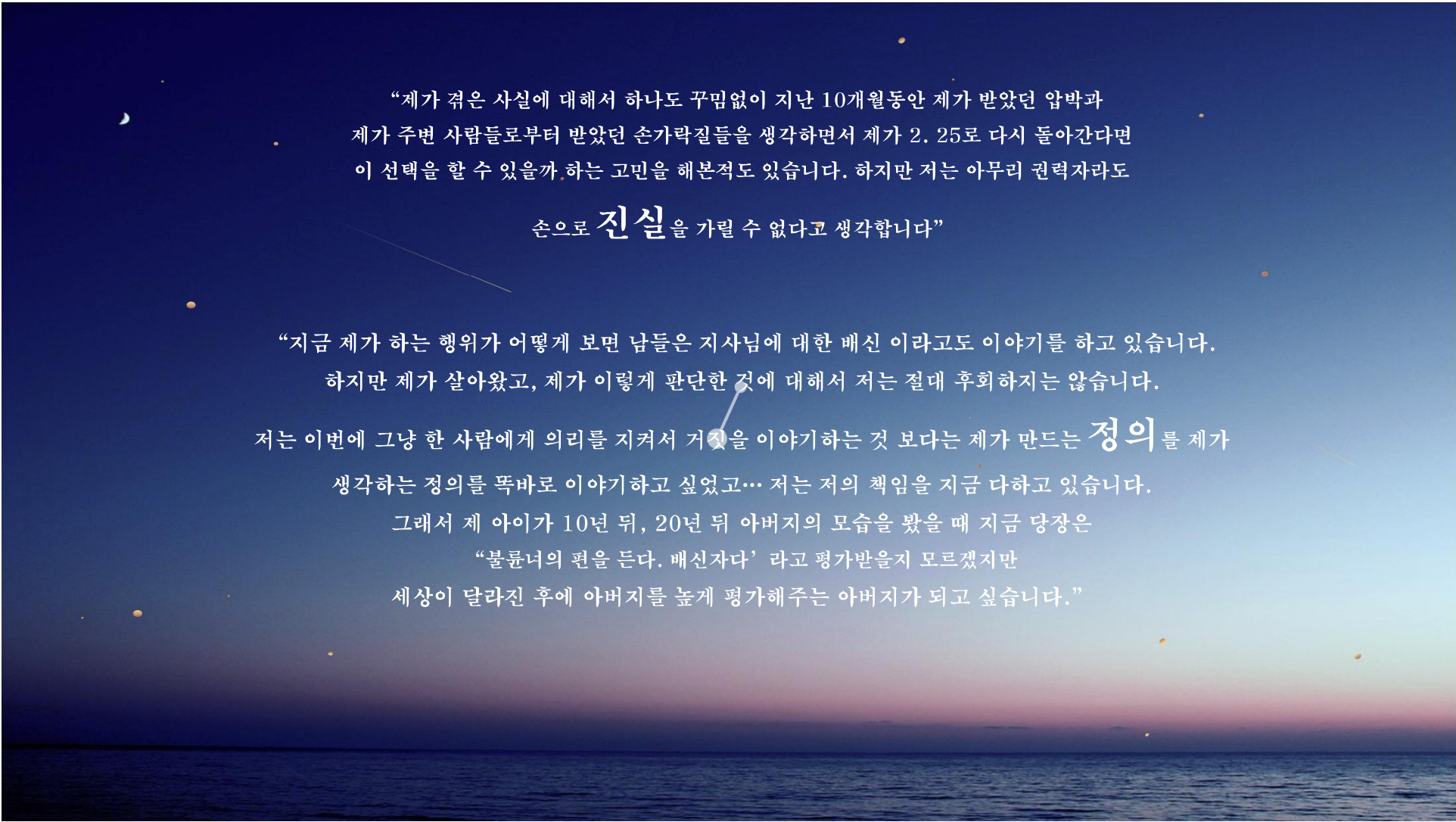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에 대한 평판조회는 다 끝났다 뭐하러 이런 일을 하느냐..”
저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내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두렵지 않지만 제 가족을 거론하는 행위는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꾸밈없이 지난 10개월동안 제가 받았던 **압박**과
제가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았던 **손가락질**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2. 25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권력자라도
손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남들은 지사님에 대한 배신 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왔고, 제가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한 사람에게 의리를 지켜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제가 만드는 정의를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똑바로 이야기하고 싶었고... 저는 저의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10년 뒤, 20년 뒤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불륜녀의 편을 든다. 배신자다**” 라고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달라진 후에 아버지를 높게 평가해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꾸밈없이 지난 10개월동안 제가 받았던 압박과
제가 주변 사람들과로부터 받았던 손가락질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2. 25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권력자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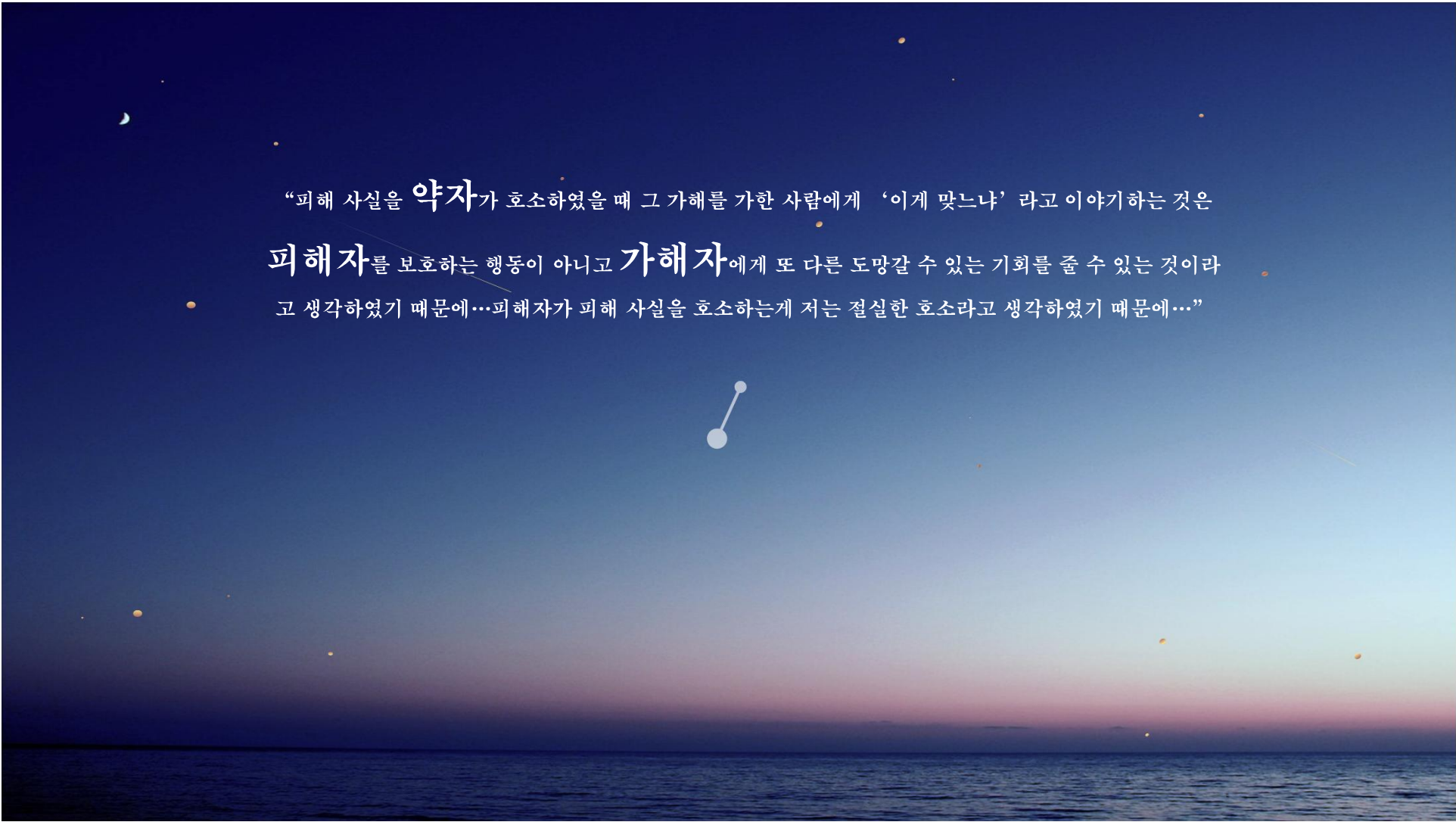
손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남들은 지사님에 대한 배신 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왔고, 제가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한 사람에게 의리를 지켜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제가 만드는 **정의**를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똑바로 이야기하고 싶었고... 저는 저의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10년 뒤, 20년 뒤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불륜녀의 편을 든다. 배신자다’ 라고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달라진 후에 아버지를 높게 평가해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피해 사실을 **약자**가 호소하였을 때 그 가해를 가한 사람에게 ‘이게 맞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행동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라
고 생각하였기 때문에...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게 저는 절실한 호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A, B의 시간들

두려움 회피 죄책감 증언 압박 진실



A, B의 시간들

두려움 회피 죄책감 증언 압박 진실



ME TOO WITH YOU

직장 내 사건과 '증인들'의 역할

정혜선 변호사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보통의 승리”

정치인 정무직의 노동

이 보 라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대표

現 보좌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④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
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 ▷ 임면 및 업무내용,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철저하게 인사권자에 귀속되어 있다는 의미
- ▷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 규정이나 해고 사유제한 등의 노동자 방어권은 모두 적용 제외

치외법권시대

치외법권시대

- ‘업무’의 법상/규율상 정해진 근거가 없음
- 인수인계 또한 매뉴얼로 전승되기 어려움
- 정치지도자의 성향, 성격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달라짐

치외법권시대

- ▷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정치지도자 1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 ▷ 정치지도자가 행사하는 '위력'의 범위는 커지고 보좌진의 방어권은 형해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우리는

갈등을 '조정'하기도,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는 사람들

법정에서 묻어지지 않은 잔여 책임

- 정치공동체의 기본 합의를 파기한 죄
- 피의사실 공표가 권력임을 알고 적극적 공표 통해 피해자에게 다시 가해한 죄
- 평판이 핵심인 정치영역에서 피해자에게 낙인을 가한 죄
- 정치인에게 주어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력(인맥, 언론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죄

내부의 부정의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정치의

젠더권력 교체
세대 교체

권력의 이동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보통의 승리”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김 수 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포털 서비스에서 뉴스 읽기는?

“많이 본 뉴스”

랭킹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공감 많은

SNS 공유

NEW
집계안내 >

많이 본 뉴스 | 정오 ~ 1시 까지 집계한 조회수입니다. 총 누적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섹션별

연령별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포토

TV

정치

더보기 >

1



한국당→정의당 간 이자스민...금태섭 "여당이 놓쳐 아쉽..."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에 입당한 이자...

중앙일보 | 93,172

2

文대통령 퇴임 후 양산갈 듯..."사저 경호 예산 22억 신청" 머니투데이 | 32,831

3

강기정 "똑바로 하라!" 항의 후 "유감"... "야당이 참 어렵다..." 이데일리 | 16,938

4

다급해진 정부 "대화하자"... 일본은 뒷집지고 큰소리 조선일보 | 15,456

5

"문재인 엉덩이는 빨개...빨갱이 재인" 유튜브 동영상 논란 서울신문 | 15,326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1 한국당→정의당 간 이자스민...금태섭 "여당이 놓...

2 文대통령 퇴임 후 양산갈 듯..."사저 경호 예산 22...

3 강기정 "똑바로 하라!" 항의 후 "유감"... "야당이 참...

4 다급해진 정부 "대화하자"... 일본은 뒷집지고 큰...

5 "문재인 엉덩이는 빨개...빨갱이 재인" 유튜브 동...

6 금태섭, 정의당 택한 이자스민에 "변함없이 응원...

7 나경원 "우기지 말라" 강기정 "우기다가 뭐냐"...

8 이자스민, 정의당 行... 금태섭 "민주당, 이주민 문...

9 금태섭 "이자스민 응원...2012년 새누리당에 박수 ...

10 황·나 자충수에 지지율 급락...조국 반사이익 끝...

분야별 주요뉴스

한국당→정의당 간 이자스민...금태섭 "여당이 놓...

【언론에 의한 2차 피해】_김수아

“실시간 검색어”

The screenshot shows the Daum homepag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Header:** Daum logo, a search bar, and a list of services: 독도헬기 수색재개, 규현 송가인, 개인중고차직거래, 김신욱 풀타임, 가정용커피머신.
- Navigation Bar:** 카페, 메일, 뉴스, 지도, 증권, 쇼핑, 카카오TV, 웹툰, 블로그, 브런치, 사전, 게임, 같이가기, 더보기.
- News Section:** A row of category buttons: 뉴스, 연예, 스포츠, 영화, 자동차, 부동산. A page indicator shows 3/8.
- 많이 본 뉴스 (Most Viewed News):**
 - Category: 종합
 - 1. 금태섭 "이자스민 응원..이주여성 공천 생각 못한 민..."
 - 2. 日지자체, 韓직항 폐지 우려에 "사비로 한국 여행가라"
 - 3. '집사부일체' 김건모 이사집 최초공개, 예비신부 장지...
 - 4. "조국전쟁 종군하느라 책 진도 안나가"..유시민, 2주간...
 - 5. 또 '가스실' 된 뉴델리..공사 중단휴교령·마스크 대량 ...
- 열독률 높은 뉴스 (High Read Rate News):**
 - 1. '특권학교' 거쳐 서울대 간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 2. 핸들링 성능 좋아지는 '광폭타이어'의 비밀
- 실시간 이슈 검색어 (Real-time Issue Search):**
 - 1. 경수진
 - 2. 부산 불꽃축제
 - 3. 이자스민
 - 4. 디아블로 4
 - 5. 조수진 변호사
 - 6. 유민
 - 7. 엘린
 - 8. 가끼전

“포털 서비스를 통한 뉴스 소비”

- 속보!
- 제목을 보고 뉴스 클릭
- 댓글 많은 뉴스, 많이 보는 뉴스 클릭
- 실시간 검색어와 뉴스 연동

“속보!”

- 속보의 경우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온라인 송고, 포털을 통한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
-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1심 재판 보도
- 감추어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신속히 알려준다는 인상

“제목 보도의 문제”

- 주장 인용 제목의 문제
- 뉴스 제목 -> “사안의 이해 방식을 프레이밍한다”
- 일방적 주장 인용의 문제
- 피해자의 주장이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인상을 주는 문제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보통의 승리”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미투 아닌 불륜...안·김 용서 못해"](#)

데일리안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김지은 진술 믿은 2심 판결 정면 비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당씨는 14일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또 "김지은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씨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기..."

- 안희정 부인, 2심 작심 비판 "미투 아... 서울신문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안희정 부인 "김지은, 미투 아닌 불륜... 매일경제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민주당 "김지은, 안희정과 불륜 저지... 동아일보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안희정 부인 "김지은과 남편은 불륜... 뉴데일리 | 2019.02.14.

관련뉴스 15건 전체보기 >



[안희정 아내 '미투 아닌 불륜... 김지은, 가정파괴 가해자'](#)

문화일보 PICK | 2면1단 | 2019.02.14. | 네이버뉴스 |

민주당씨, SNS서 판결 반박 김지은 "미투는 마지막 외침이었다" 미투 관련 책 추천사에 "이 싸움 끝에 정의가 있기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당(왼쪽 사진)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항소심 재판부의...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 주장 뉴스후플러스 | 2019.02.14.
- 안희정 부인 "이 사건은 미투 아닌 불... 충청투데이 | 2019.02.14.
- 안희정 부인 민주당 "미투 아닌 불륜"... 김해뉴스 | 2019.02.14.

관련뉴스 4건 전체보기 >

【언론에 의한 2차 피해】_김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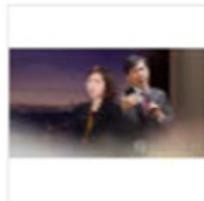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보통의 승리”



안희정 부인, "김지은 이상해 수행→정무 옮겼다"...캐넌 실체 '수면 위'

일간투데이 | 2018.07.13. |

[일간투데이 이인화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인 **민주원** 씨의 남편에 대한 **증언**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그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바닥에 그림 그리며 교태 부려"

서울경제 | 2018.07.13. | 네이버뉴스 |

이날 **민주원**씨는 안희정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와 아내로서 느낀 안 전 지사의 인격과 행동 등에 대해 법원에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씨가 '침실 사건'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8월 안 전 지사와...



安의 부인 민주원 씨 첫 출석..."김지은 새벽 침실 들어와 바닥에 그림 그리며..."

헤럴드경제 | 2018.07.13. | 네이버뉴스 |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13일 5차 공판에 증인으로...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민 씨는 지난해 8월 부부가 충남의 한 리조트에 투숙했을 당시 김 씨가 새벽 4시에...

【언론에 의한 2차 피해】_김수아

“포털 뉴스 서비스와 pick!”

- 많이 보는 뉴스라고 알려져 더 많이 보게 만든다
- Pick 기사가 저널리즘 윤리 준수하는지/성인지 감수성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는 상황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보통의 승리”

뉴스 1-10 / 163건

PICK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관련도순 ✓ 최신순 ✓ 오래된순

검색결과 자동고침 [시작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김지은측 "2차 가해" 항의\(종합\)](#)

연합뉴스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
다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미투 아닌 불륜"...안희정 부인, 2심 판결 정면 비판 / 연합뉴스 (Yonhapnews)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김지... 세계일보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피해자"... 한국일보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김지... 연합뉴스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 주장... 한국일보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19건 전체보기 >](#)



[안희정 부인 민주당 "미투 아닌 불륜이다" 주장 논란](#)

YTN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당 씨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 14일 자정에 올린 SNS 글에서 민주당 씨는 "김지은 씨와..."

- 안희정 전 부인 "미투 아닌 불륜" 주장 kbc광주방송 | 2019.02.14.
- 안희정 부인 "김지은의 거짓말 밝혀"... 전자신문 | 2019.02.14. | 네이버뉴스
- '안희정 부인' 민주당 "미투 아닌 불"... MBN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안희정 부인 민주당 "미투 아닌 불륜"... KBS | 2019.02.14. |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12건 전체보기 >](#)



[안희정 부인 "이번 사건은 불륜"...여성단체 "2차 가해"](#)

JTBC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당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과 아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단체는 "민..."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김지... TV조선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안희정 부인 민주당 "미투 아닌 불륜"... 동아일보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김지... YTN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 안희정 부인 "김지은이 유혹"...2차... MBN **PICK** | 2019.02.14. | 네이버뉴스

“실시간 검색어와 연동”

- 뉴스는 실시간 검색어와 연동
- 검색어에 뜬다 -> 검색어 클릭 -> 뉴스 노출

“실시간 검색어와 연동”

- 가해자 가족의 페이스북 글쓰기 -> 기자의 기사화
- 일방적 주장을 요약 전달하거나 전재할 뿐인 기사 내용
- 실시간 검색어와 기사 연동
 - 기사화된지 2-3시간 내, 네이버 포털 기준 실시간 검색어 10위권 안으로 들어가 뉴스 클릭을 유도하였음

“포털 서비스를 통한 뉴스 소비”

- 댓글을 먼저 보는 경향
- 댓글을 여론의 지표로 인식

“누가 댓글을 읽어?”

- 포털 자체 뉴스 서비스 중단 시 “언론사 사이트 더 방문” 33%.. “뉴스 이용 줄이겠다” 11%
- 최상위 댓글 2~3개 읽는다 35.4%.. 상위 10개정도까지 읽는다 40.4%
- 포털 뉴스 댓글 “읽는다” 70%.. “댓글에 감정 여과 없이 표출돼” 76%
- 댓글 이용자 84%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댓글 본다”
- 지난 1주일 간 인터넷 뉴스 의존 경로.. 네이버 65.4%, 다음 25.5%, 언론사 사이트 2.4%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4권 5호, <포털 뉴스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인식 조사>

“온라인 생태계”

- 하나의 정보는 정보 매개자에 의해 수많은 온라인 공간을 떠돌게 된다
- 수많은 온라인 유사 뉴스 서비스, 클릭을 유도하는 저열한 제목 사용
- 정보매개자 역시 클릭 유도의 의도로 자신이 제목을 붙이기도 하며, 제목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기도 함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보통의 승리”

"김지은의 '미투' 주장은 어불성설, 불륜녀일 뿐!"... 안희정 부인 ...

www.newsgg.net > news > article ▼

2019. 2. 14.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하여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당 씨가 “김지은 씨는 ...

안희정 부인 민주당씨 “김지은 거짓말... 미투가 아니라 불륜 ...

acoms.atit.co.kr > ~board > bbs > board

민주당씨 페이스북 글 전문. 아직도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지난 1년여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제 한 몸 버티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런 글을 써야 ...

안희정 부인 민주당씨 "미투 아닌 불륜"...김지은 측 "2차 가해 ...

www.nwtn.co.kr > news > articleView ▼

2019. 2. 15. -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당 씨가 ...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안희정을...매우 불쾌했다” 고개 숙인 ...

ilyo.co.kr > ... ▼

2018. 7. 14. - '정치적 동지'서 '증인'으로...안희정-수행비서 김지은 성폭행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

【언론에 의한 2차 피해】_김수아

“언론보도와 2차 피해”

- 성인지 감수성이 없이 작성된 언론보도 자체의 문제
- 포털 서비스를 통해 매개되면서 댓글 유도
- 보도의 문제와 댓글로 인한 2차 피해 가중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보통의 승리”

피해자 지원 및 동행

배 복 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장애여성공감 대표

피해자 지원 및 동행

공대위가 3월 5일부터 결성된 이유

- 2018.3.5. jtbc 뉴스룸 방송을 마치고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
- 그날 밤.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과 첫대면. “지은씨! 잘했어요!”
- 그날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554일동안 함께!!

3월 6일부터 시작된 2차 가해 대응 (1)

- 2018.3.6. 공대위 2차 가해 경고, 증거인멸 경고, 2차 가해 제보메일 개설 및 홍보
- 2018.3.12 피해자 자필편지 (2차 가해 중단 요청) 언론 보도
- 2018.3.1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차 피해 글 생산자 및 유포자 고발
- 2018.3.21 2차 피해 1차 고발인 조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팀)

3월 6일부터 시작된 2차 가해 대응 (2)

- 2018.04.18 안희정 측근으로부터의 2차 피해 보고서 제출 (국회, 언론)
- 2018.04.19. 남인순 국회의원실_2차 피해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의원 페이스북)
- 2018.04.24 안희정 측근 1인(당시 충남공천심의위원) 민주당 젠더폭력 TF 고발
- 2018.05.18 안희정 측근 3인 경찰 추가 고발
- 2018.06.01 2차 피해 2차 고발인 조사
- 2018.12.26 2차 피해 2차 고발 건, 피고발인 유**, 전성협 상임대표 대질신문

고소장 접수부터 기소까지

- 2018.03.06 고소장 접수
- 2018.03.09. 1차 24시간 조사 동석 (피고인 예고 없이 서부지방검찰청 출석)
- 2018.03.17. 2차 6시간 조사 동석
- 2018.03.28 1차 영장실질심사 기각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 2018.03.29. 3차 4시간 조사 동석
- 2018.04.05 2차 영장실질심사 기각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 2018.04.11 피고인 안희정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

재판이 시작되다

- 1심 재판 : 준비기일(2회), 공판(7회), 피해자 진술 1회
- 2심 재판 : 준비기일(2회), 공판(3회), 피해자 진술 1회
- 3심 재판 : 1회 공판

재판에서 피해자 출석한 날은, 사전에 재판부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조율작업.
증인지원관실의 증인지원담당관과 소통하여 피해자가 대기할 곳, 법정까지 동선, 비공개
심리신청, 피고인 분리신청, 신뢰관계인 동석 등 세밀하게 체크와 준비
하지만, 1심에서 피해자 증인심문이 16시간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의 헛기침 소리와 피
고인 변호사의 무례한 질문을 막을 수 없었던 법정 안에서의 한계.

피해자 변호인단

- 검찰 수사 및 1심 재판 지원 : 3명 변호인단_동행, 의견서 제출 등
- 피해자 2차 피해 고발인(전성협) 지원 : 1명 (측근 아직도 검찰처분안됨)
- 1심 모해위증죄 피소 지원 : 1명 (불기소 처분, 항고 기각)
- 2심 재판 지원 : 9명의 변호인단_ 재판참석, 증인지원, 의견서 제출
- 3심 재판 지원 : 9명의 변호인단_ 의견서 제출

최종적으로 피고인측이 17명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곳곳하게 한결같이 대응한 변호인단의 법률지원은 참으로 놀라운 일.

피해자를 재판한 1심 재판

- 2018.07.11 7차 성명서 “모해위증은 역고소” (피해자측 증인 모해위증 고소에 대한 입장발표)
- 2018.07.12 8차 성명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도넬은 보도리스트공개”
- 2018.07.12 9차 성명서 “어떤 피해자가 이 길을 가겠는가”
- 2018.07.13. 10차 성명 “안희정 이미지 메이킹’ 경력으로 ‘김지은 이미지메이킹’에 나선 7명의 안희정 측근 증인들”

피해와 가해를 바꾸겠다는 2심 이후 피고인 측 공격

- 2019.02.13. 민주원 페이스북 2차 가해 글 게시
- 2019.02.14. 공대위 페이스북, 트위터 공지_‘전형적인,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무분별한, 언론의 퍼나르기 보도 자제요청’
- 2019.02.20. 민주원 페이스북 2차 가해 글 게시
- 2019.02.21. 공대위 페이스북 가해자측 주장에 대한 반박글 게시
- 2019.02.22. 공대위 페이스북 가해자측 주장에 대한 반박글 게시
- 2019.02.26. 공대위 16차 성명 발표_“가해자 주장 받아쓰기 그만하고, 일상의 수많은 ‘안희정’을 향한 싸움에 언론도 동참하라”

전문가그룹의 지원 (1심)

- 1심 재판부에 전문가 의견 제출 : 15명 참여
 - 여성 : 권김현영, 김보화, 이명선
 - 언론 : 김수아, 김언경
 - 노동/사회 : 김현미
 - 국회 : 박인혜, 이보라
 - 피해자심리 : 이수정, 장형윤
 - 정치 : 이진옥, 권수현
 - 피해자에 대한 이해 : 은수연 / 최김희정 / 정하린

전문가그룹의 지원 (2심)

- 2심 재판부 전문가 의견 제출
 - 사회학자 엄기호
 - 공공기관 전 비서
 - 여성노동전문 상담창구 평등의전화
 -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2인,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 연극인

전문가그룹의 지원 (3심)

- 전문가 의견서 -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 74명
- 활동가 의견서 - 117개 여성시민단체 1,115명 활동가
- 국제 여성 인권단체 및 Schwartz Anat 외 57인 의견서

시민들의 탄원서, 의견서 집회

- 안희정 대선캠프 동료들의 의견서와 탄원서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트위터 지지그룹 '팀 스틸버드' 운영진의 탄원서
- 문화계 작가 228명의 탄원서
- 성폭력피해자에 연대하는 92명의 지은들과 112명의 지은이 친구들의 탄원서
- 1심 무죄판결 후 서부지법 앞 집회에 참여한 400여명의 시민들
-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주최한 1심 판결규탄 집회 참여한 2만여명의 시민들
- 재판 전과정에 참여한 연서명 탄원서에 동참한 1만6천여명의 시민들
- 재판 전과정에 방청연대로 참여한 시민들후원금으로 참여해주신 1,600여명의 시민들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

- 158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대위에 결합.
- 공대위 회의 : 52회
- 성명서 발표 : 16회
- 기자회견 및 집회 : 10여회
- 언론대응 : 인터뷰, 문자공지, 보도자료 발송, 기사정정요청 등 수회
- 2차 피해 고발 및 언론 및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피해 대응
-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계정운영

피해자와의 소통과 동행

- 일상지원 : 피해자의 얼굴이 알려진 상황과 신변 위협감을 느끼는 상황
- 신뢰관계 동행 : 검찰 조사 및 법정 진술 등
- 법률지원 : 피해자변호사 조직 및 지지, 그 외 사회적 여론 작업, 2차 가해 고발 등

피해자와의 소통과 동행

- 주거지원 :
cf) 기존 제도 : 쉼터-피해자보호시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SH공사 임대지원
필요한 지원 – 미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쉼터
- 의료지원 : 긴급 및 일상 의료지원
- 다른 피해자와의 만남, 사회적 소통 – 글쓰기 등

향후 과제

2차 피해 고발에 대한 결과 현황

- 1차 고발한 악성댓글러 : 20여명 구공판(벌금형) 및 교육조건 기소유예처분 상태
- 2차 고발한 측근 : 2명은 기소의견 송치, 1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아직도 기소 여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음

피해자는 일상으로

- 주거 안정
 - 심리적 치유, 회복
 - 사적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일상, 사회적 활동이 가능해야
 - 민사소송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진행 검토
 - 지지망, 지지층, 지지의 표현 등 – 공대위 조직화 이후 과제
-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공대위 액션, 시민참여

닷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한국여성의전화

공대위 액션, 시민참여

14

재판방청연대

8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2

집회 주최

공대위 액션, 시민참여

16

공대위 성명발표

4

토론회·집담회·워크숍

1심

2018년 6월 15일
~ 2018년 8월 14일

6.15.

6.22.

7.6.

7.9.

7.11.

7.13.

7.16.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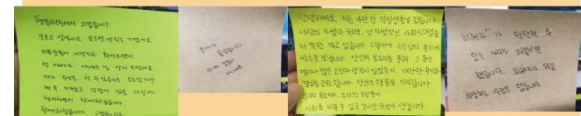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뜨거운 지지와 연대의 목록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14일 선고공판에 마음 모아주세요!

07:30 방청연대 집결 / 10:00 선고공판 / 11:30 기자회견





2018. 7.6. 피해자 진술(비공개)

응원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라는 말에도 숨이 막힐 때가 있고, ~~안~~ 안전하고 마음이 편해질지 모르,
응답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아직이면 다시 싶은 꿈꿀 수 있기를,
기뻐합니다.
또다른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용기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일대미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니를 사랑해" 라는 자명한 진리가 찾아온
작년 상사에게 사랑을 표현한 날이 있었어요.
제니가 친구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을 사정없이
대고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일대미로 돌아왔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일대미 선생님이 제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사랑을 버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니 사랑해 함께 3인 1행

6월 15일 재판 준비기일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

METOO 다짐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본자 숨죽여 용고 괴민하고 항고 무력감을 느꼈던
그 시간에 수많은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먼저 버추신 그 용기에
저희는 더 큰 용기로 지지합니다.
'피해자 다짐' / 피해자 프레임은 강요하고 의심하는 모든 것들에
당당히 맞서 싸워겠습니다.
처음 사건을 고발하기까지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않도록 지켜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볼게요.
- 피해자성을 드러내는 데 인색을 견디지 않아 뒤는 사리가 되도록 -
그리고 피해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숙의도 있습니다. 양면의 피해자만의 용이로든 # WITHYOU

김 지은 씨! 😊
긴 싸움에서 외롭거나
지치지 않게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2018. 7. 6



2018. 7.2.
기자회견



2018. 7.26.
긴급 토론회

2심

2018년 8월 15일
~ 2019년 2월 1일



2018.11.21.
기자회견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월화수목금금금 야근하며 버텼던

평범한 회사원, 말 못했던 나

언제 해고될지 몰라 전전긍긍한

비정규직 계약직, 눈치껏 웃었던 나

심부름, 성희롱, 결혼할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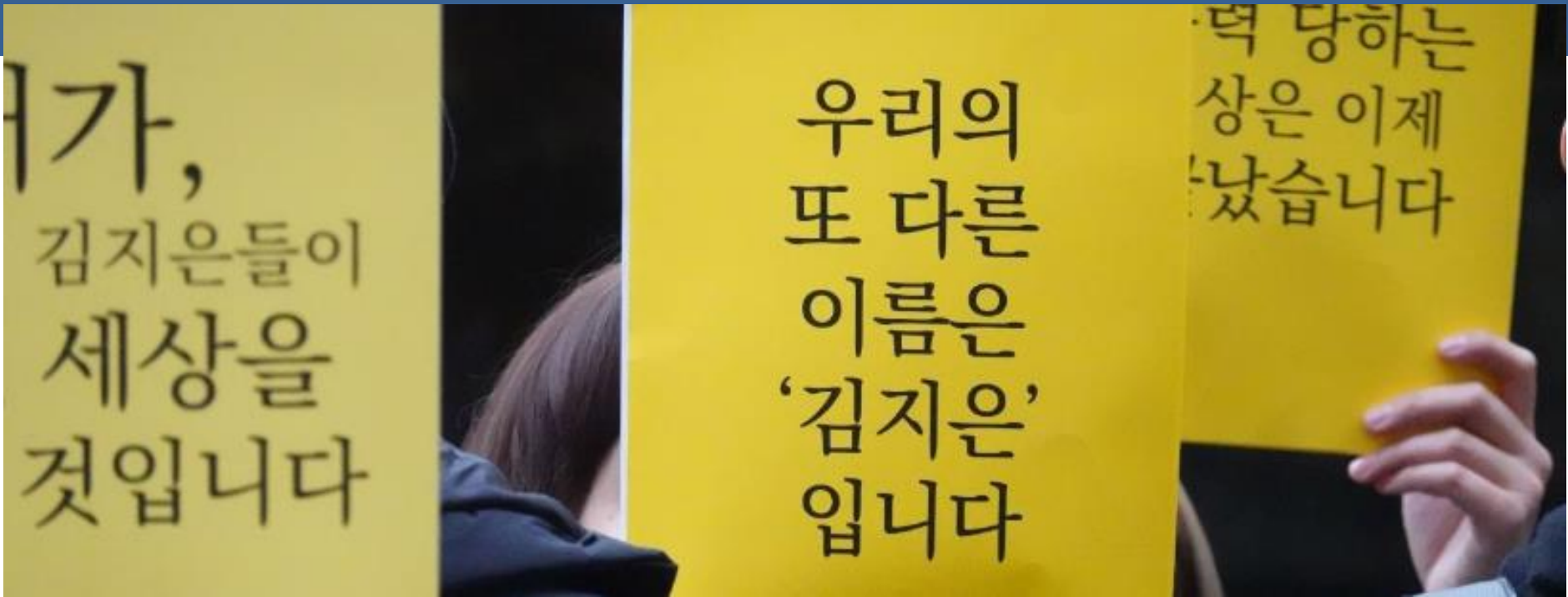
교수가 괴롭혀도 평판 나빠질까 버텼던 나

20181129

14:30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첫 공판 기일에 낭독될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문



“스마트한 남성이 왜 그랬죠?”

“수행비서에 부적절한 접근, 왜 했습니까?”

“전적인 잘못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입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싸십니까?”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일정에 맞서

안희정에게 질문한다

::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1월 7일(월) 오후 3시까지 구글링크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연명/탄원서

시민 약 **20,000**

활동가 **1,115**

학계·법조계 전문가 **75**

지지그룹 약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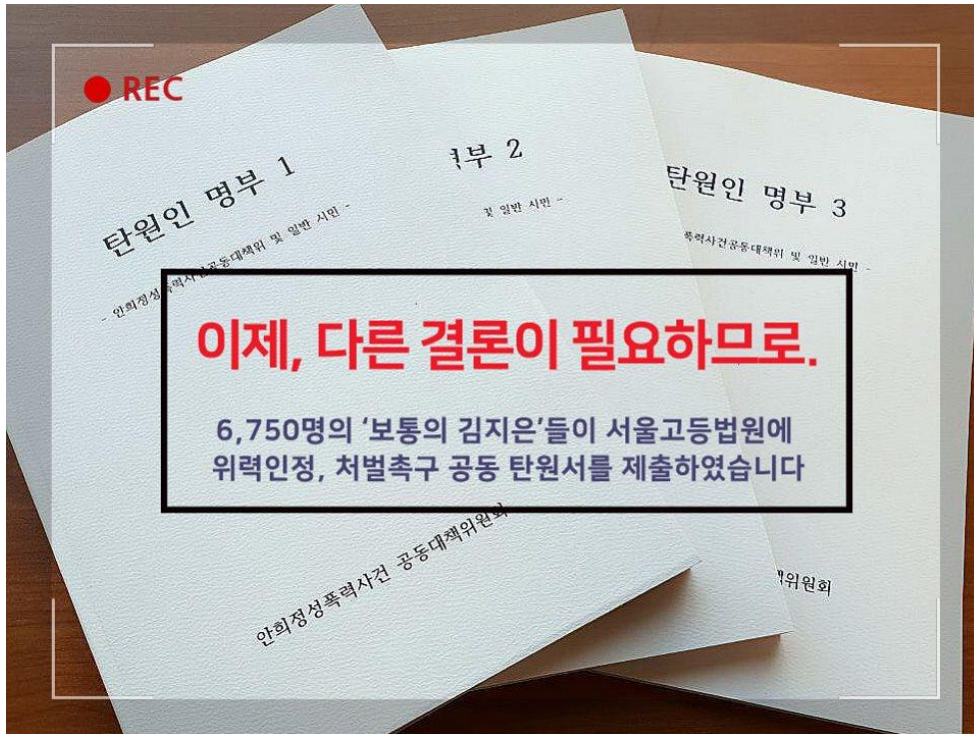




사진 여성신문



사진 경향신문



3심

2019년 2월 2일

~ 2019년 9월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 facebook LIVE

2019년 2월 1일 서울고법민형 1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3년 6개월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원구속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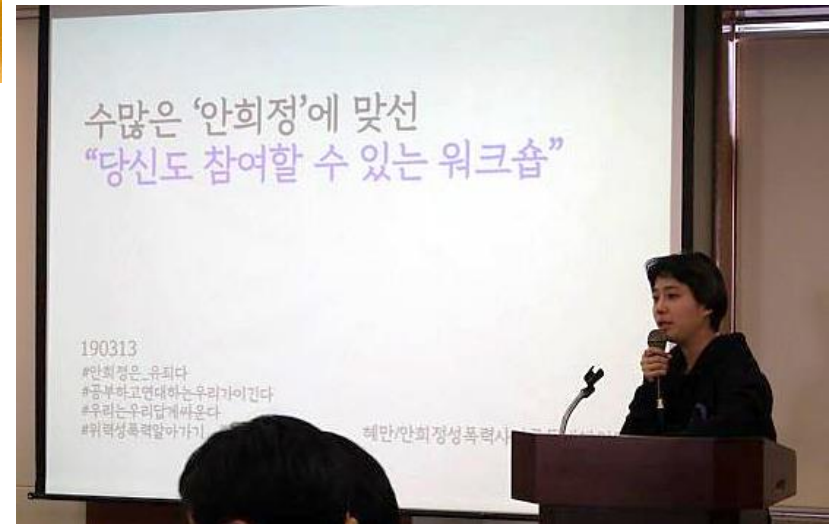
이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직·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에 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본 공개법정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의 쟁점을 분석, 리아해 견해를 아래의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발표 - 1심과 2심 판결 쟁점별 분석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달랐던 이유**

① 원판에 대한 판단 (김두나 변호사)
② 피해자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김혜경 변호사)
③ 피고인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최윤정 변호사)
④ 징단자의 진술 - 판결 (사예진 변호사)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리-샤쓰에
스-티카 붙이고
우리는 달린다**

190504 이안젤라
**위력성폭력
끝장내자**

위력성폭력 끝장내는 우리의 '운동'

제19회 여성마라톤대회
2019년 5월 4일(토) 오전 8시 30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부스에 오셔서 스티커 받아주세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6월 반성폭력 운동-장
도지사와 군수의
위력 성폭력에 맞서다

2019년 6월 19일 늦은 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백영남 전남여성시설복지연합회 회장
전 함평군수 사건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전 충남도지사 사건

한국성폭력상담소 X 안희정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안희정 직장 내 성폭력 사건 3심 재판방청 연대

2019년 9월 9일 (월) 오전 10:10, 대법원 1호 법정

참석방법 선착순 입장 (방청권 배부 후후 공지)
문의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02.739.8858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2019년 9월 9일 (월)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
(서초역 5번 출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 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전국



연대와 참여,
감사합니다.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감사한 분들에게

후원계좌를 공지한
2018년 08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총 1,673 명이
56,211,787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 의료생계지원비 : 24,846,300원
 - 법률지원금 : 25,000,000원
 - 공동대응활동비 : 6,365,487원
-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metoo	WithU	감사합니다	강보미
#with you	withyou	감사합니다	강빛나래
#withyou	withyou	감사합니다	강새롬
#김지은후원 릴레이	WithYou	감사합니다	강서린
BMJH	withyou	감사합니다	강선미(하랑성)
DAISY	WITHYOU	감사합니다	강세윤
gcda	Withyou	감사해요 김지은	강수미
Hope	withyou	감옥으로	강수미
K	withyou	감임경	강수영
LEEJO	withyou	강가연	강유진
METOOWITHU	가해자 감옥 가라	강건하	강은지
soonyeosa	가해자 감옥으로	강남규	강이수
toll	가해자는	강남식	강주현
Wineguitar	가해자는 감옥 가	강다연	강지원
with you	가해자는 감옥 가	강록지	강지원
with you	가해자는 감옥으로	강문순	강지윤
withU	가해자는 감옥으로	강민경	강진구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강진영	고은비	권나형	김경미
강혜원	고은빛	권다연	김경아
강혜원	고주연	권문정	김정은
강환이	고혜정	권미경	김정은
결에설게요	고혜정	권세정	김경희
결에있어요	공보경	권수현	김고은
고가희	곽명철	권오석	김권호
고대문화	곽영화	권은송	김나경
고마워요기어이이겨냅	곽윤지	권정은	김나경
고맙습니다	곽은정	권정현	김나연
고민경	곽은정	권준오	김나윤
고생하셨어요	곽은지	권지연	김나현
고서영	교육플랫폼이탈	권하은	김남기
고선경	구보영	권혜민	김다듬
고아라	구윤진	권혜은	김다름
고아라	구현희	김가윤	김다빈
고유림	구현희	김가해	김다연
고윤정	권나연	김가현	김다영
고윤희	권나현	김강희	김다은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김다은
김다인
김다정
김다정
김단아
김대숙
김대현
김도은
김도현
김도희
김동규
김동연
김동은
김두원
김란이
김명선
김명희
김명희
김묘정

김미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경
김민규
김민선
김민옥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하
김보경

김보람
김보명
김보미
김보성
김부경
김산하
김상미
김상애
김상훈
김서경
김서린
김선민
김선영
김선영#withyo
김선오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성윤

김성하
김성희
김성희
김세영
김세화
김세희
김소현
김송
김송아
김수경
김수근
김수림
김수민
김수아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영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숙현
김순남
김슬기
김슬비
김슬아미
김승옥
김승진
김승현
김승희
김아람
김아람
김아름
김안순
김양지영

김양희
김여진
김연재
김연주
김연주
김연주
김연희
김영
김영신
김영아
김예림
김예슬
김예은
김예지
김예지
김옥경
김옥선
김용숙
김용연

김우리
김우리
김유리
김유리
김유림
김유림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서
김윤정
김은아
김은진
김은한
김은혜
김의경
김이승현
김인경
김인영

김재경
김재민
김재희
김정아
김정우
김정윤
김정은
김정현
김정현
김정희
김주영
김주은
김주은
김지선
김지송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응원!)
김지영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김지영	김지은님힘내세요!	김지은님화이팅	김지은씨를지지합니다
김지영	김지은님감사합니다	김지은님후원	김지은씨를지지합니다
김지우	김지은님감사합니다	김지은님후원	김지은씨에게
김지원	김지은님과연대	김지은님후원	김지은씨연대
김지윤	김지은님과연대	김지은님후원	김지은씨연대
김지은	김지은님을응원합니	김지은님후원	김지은씨연대합니다
김지은	김지은님을응원합니다	김지은님후원요	김지은씨와 연대합니
김지은	김지은님을지지해요	김지은님후원자	김지은씨와 연대합니
김지은	김지은님응원	김지은님힘내세요	김지은씨와연대
김지은씨를지지합	김지은님응원	김지은님힘내세요	김지은씨와연대
김지은후원	김지은님응원합니다	김지은씨 연대합니다	김지은씨와연대
김지은?워마	김지은님응원합니다	김지은씨응원합니다	김지은씨와연대
김지은withyou	김지은님응원해요	김지은씨힘내세요	김지은씨와연대
김지은과연대합니다	김지은님응원힘내세요	김지은씨같이가요	김지은씨와연대
김지은과함께	김지은님지지	김지은씨께연대합니다	김지은씨와연대
김지은과함께	김지은님지지합	김지은씨를응원합니다	김지은씨와연대
김지은님 응원합니다	김지은님지지합니다	김지은씨를지지하는삶	김지은씨와연대
김지은님후원	김지은님지지합니다	김지은씨를지지합니다	김지은씨와연대합니다
김지은님후원	김지은님편	김지은씨를지지합니다	김지은씨와연대합니다

[illegible][illegible]

김지은씨힘내세요
김지은씨힘내세요
김지은씨힘내요
김지은씨힘내요
김지은씨힘내요
김지은씨힘내요
김지은씨힘내요
김지은을 지지합니다
김지은을지지합
김지은을지지합니다
김지은을지지합니다
김지은을지지합니다!
김지은응원
김지은의친구
김지은지지
김지은지지
김지은지지
김지은지지자

김지은친구소영
김지은화이팅
김지은화이팅
김지은후원
김지은후원
김지은후원
김지은후원
김지은후원릴레이
김지은후원릴레이
김지은후원릴레이
김지은힘내라
김지은힘내라
김지은힘내요
김지해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호
김진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김진숙
김진아
김진아
김진영
김진영
김진현
김태리
김태민
김태옥
김태희
김태희
김하나
김하림
김하얀
김하영
김한슬
김해미
김해선
김허앵

김현찬
김현경
김현경
김현미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k
김현진
김현희
김형미
김혜리
김혜림
김혜민
김혜영
김혜완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호연
김호연
김호정
김홍규
김화수
김효진
김휘리
김희선
김희성
김희진
끝까지 지지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김지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연대할게요 응원
끝까지 함께
끝까지 함께!!!!
나누리
나도 김지은이다!

나도 김지은이다
나소리
나아영
나예지
나윤경
나윤오
남아름
남주연
남춘미
남혜민
내가 김지은이다
내가 김지은이다
내가 김지은이다
내가 김지은이다
내가 김지은이다
년유죄옥빈
노수연
노승미
눈길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뉴트로이스
늘 응원합니다!
다른김지은
다원
당신과연대합니
대전여정넷(박으뜸)
데미걸
도상윤
도움
도찬호
두이진
라인서
라임
라종신
류벼리
류재형
류지수
류진희
류채연

류현경
릴글라스
마경희
마법사
마음깊이감사드려요
만혜사모임박미숙
모수민
무아
문기라
문봄
문선현
문선희
문수미
문수인
문숙
문유경
문주선
문주연
문주연

문혜림
문혜주
문희영
미투위드유
민경우
민세희
민지영
민호영
바뀌야산다
박가영
박경민
박경아
박계나
박광식
박기남
박기자
박나란
박나진
박다연

박미지
박미진
박민아
박민지
박민지
박보나
박보령
박상아(김지은후원)
박새미
박서재
박서희
박선아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정
박선주
박선화
박성애
박성연
박성휘
박소라
박소람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수민
박수지
박수진
박수현
박수현

박수현
박승희
박신혜
박앵무
박연주
박영일
박예린
박예본
박예솔
박옥기
박우리
박우미
박유미
박유현
박윤미
박윤아
박윤주
박은영
박은영

박은주
박익선
박자람
박자행
박재영
박정남
박정란
박정수
박정아
박정원
박정혜
박주연
박주은
박주하
박주현
박지선
박지수
박지영
박지원

박지윤
박지향
박지혜
박진용
박진주
박채린
박초롱
박초롱
박한주
박현이
박현지
박형섭
박혜경
박혜준
박혜준
박혜진
박홍준
박환복
박효범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박효영
박희선
박희선
박희수
박희원
반드시함께하겠습니다
배선아
배선영
배예린
배윤지
배정원
배지원
배지현
배혜린
백경흔
백난주
백미록
백미숙
백미화

백미희
백소정
백수연
백수희
백운경
백유미
백지영
백혜민
백혜진
변규리
변미연
변정희
변지원
변지현
변지호
상예림
서로의용기다
서민경
서보일

서수현
서예지
서정순
서정은
서지연
서지연
서지원
서지은
서지혜
서혜문
석지연
석희림
설보미
설지영
설효란
성소정
성영정
성정은
성지현

성평등
성폭근절지리산여성회
성폭력out
성폭력방지후원
성효선
세상의모든김지은에게
소액이나마보탭니다
소액이라미안합니다
소액이라죄송합니다
소액이지만보탬이되길
소액후원
소재은
소지현
소희성
손미혜
손민정
손보은
손상열
손여울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손영민	송아람(김지은후원)	신소현	썸썸-응원합니당
손유경-지지와연대	송여름	신연정	씨네키톤
손유라	송영숙	신연주	안다영
손윤정	송은샘	신연주	안상원
손인정	송정아	신영경	안서현
손지영	송지연	신영미	안세영
손지현	송한나	신영민	안세희
손현석	송해연	신예슬	안세희
손현석	송화	신의진	안소진
손형선	수고하십니다	신재은	안소희
손혜란	승리하는그날까지	신정하	안예은
손혜정	승리하시길	신지영	안예은
손희경	신가령	신해욱	안은나
손희정	신경숙수임료많드려요	신현규	안이슬
손희정	신나라	신혜연	안주연
송가영	신도연	심보미	안주연
송경인	신보람	심은영	안지영
송다영	신새벽	심은정	안지원
송미성	신세은	싸워주셔서감사합니다	안지원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안진선	안희정유죄	양민영	연대하겠습니다
안진희	안희정유죄	양수빈	연대하고자합니다
안하나	안희정유죄	양정아	연대합니다
안한나	안희정유죄!	양지우	연대합니다
안해민	안희정유죄징역에빼기	양지원	연대합니다
안혜림	안희정유죄판결기념	양채연	연대합니다
안혜림	안희정은유죄다!!	양한빛	연대합니다
안혜진	안희정은감옥으로	양효경	연대합니다
안희정유죄	안희정은유죄	양효진	연대합니다
안희정감옥	안희정은유죄!	언니화이팅!!	연대합니다
안희정감옥으로	안희정은유죄다	언제나응원해요	연대합니다
안희정바보	안희정은유죄다	엄세하	연대합니다
안희정박살	안희정은유죄다	엄솔미	연대합니다
안희정유죄	안희정을감옥으로	엄윤진	연대합니다
안희정유죄	안희정을감옥으로	엄희정	연대합니다
안희정유죄	안희정을감빵으로	여보람	연대합니다
안희정유죄	안희정청부살인비용	여자목숨값	연대합니다
안희정유죄	양다솜	연남살롱	연대합니다
안희정유죄	양대은	연대의마음으로!!	연대합니다

우리가서로의용기당
우리가이긴다
우리는김지은을지지합
우리는끝까지싸운다
우리는서로의용기다
우리는이긴다
우속미
우연서
우완
우춘희
우춘희
우혜림
우혜림
우혜림
우혜림
우혜림
우혜림
우혜림
우혜림
우혜림
우혜림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우혜림	유슬기	윤설	응원합니다
우혜림	유승희	윤설주	응원합니다
우혜림	유어진	윤성현	응원합니다
원새롬	유윤아	윤세연	응원합니다
원혜진	유은수	윤수경	응원합니다
위드유	유은옥	윤수정	응원합니다
위드유	유죄안희정	윤아름	응원합니다
위드유김지은씨	유지은	윤예영	응원합니다
위모씨	유청우	윤예지	응원합니다
위아라	유하령	윤우성	응원합니다
유가현	유한밀	윤이든	응원합니다
유경림	유형옥	윤이든	응원합니다
유경희김지은응원!	유혜정	윤진아	응원합니다
유나연	윤나은	윤해림	응원합니다
유명희	윤나현	윤혜란	응원합니다
유민	윤다혜	윤혜영	응원합니다
유서원	윤미희	응원	응원합니다
유서희	윤보경	응원.학인	응원합니다
유송이	윤상미	응원하고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이자람
 응원합니다힘내세요
 응원해요
 응원해요
 이강보미
 이건아
 이경은
 이경은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계경
 이고운
 이공주복
 이규빈
 이규상
 이다연
 이동하
 이동현
 이라
 이랑
 이명남
 이명선
 이명선
 이명진
 이문영
 이문환
 이미래
 이미리
 이미정

이민경
 이민경
 이민영
 이민영
 이민정
 이민희
 이보람후원합니다
 이보민
 이보혜
 이상명
 이상미
 이상미
 이서경
 이서연
 이서영
 이서윤
 이서현
 이서현
 이서희

이선아
 이선우
 이선주
 이선진
 이세은
 이소정
 이소정
 이소정
 이소현
 이수경
 이수아
 이수아
 이수아
 이수연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지
 이수진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이수현	이예진	이은지	이주옥
이수현	이예진	이은채	이주현
이슬기	이예진	이인순	이주혜
이슬하	이옥지	이인혜	이지민
이승아	이원빈	이임경	이지선
이승우	이원주	이재영	이지연
이승우	이유나	이재은	이지영
이승주	이유진	이정민	이지영
이승현	이유진(웰컴저축)	이정은	이지영
이승현	이윤경	이정은	이지영
이시애	이윤미	이정은	이지영
이시진	이은기	이정은	이지원
이아름	이은섭	이정자	이지원
이연지	이은숙	이정주	이지은
이영민	이은영	이정현	이지은
이영주	이은영	이주연	이지현
이영초	이은정	이주영	이지현
이예슬	이은정	이주영	이지현
이예지	이은주	이주영	이지혜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이진송
이진아
이진희
이채원
이채원
이채원
이채현
이태화
이하나
이하늘
이하은
이한
이한나
이해인
이해인
이해인
이해인
이해인
이해인

이현
이현민
이현숙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현지
이현지
이현화
이혜랑
이혜린
이혜인
이혜정
이혜진
이혜진
이혜진
이호은
이호정
이호형

이효정
이훈지
이희은
이희진
익명
익명
인가은
인정우
일상으로
임가영
임경진
임규화
임근화
임도희
임모영
임미용
임미향
임보라
임봄솔

임선영
임선우
임선희
임설아
임세은
임소연
임소영
임소은
임소희
임수정
임숙정
임예지
임은주
임주희
임하영
임해리
임현덕
임혜민
임혜정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입금연대합니다
작은응원
작지만 보탭니다
장다운
장미혜
장민경
장민지
장서연
장성연
장소연
장수진
장애리
장영실
장영은
장유희
장윤정
장인순
장인자
장정민

장정숙
장주연
장지련
장지애
장지애
장지원
장필화(20만종잔액)
장한솔
장현남
적은금액보태봅니다
적은금액이지만마음을
적은금액이지만힘보탭
적은돈보탭니다
적지만 힘이되길
적지만도움이되었으면
적지만응원해요
적지만힘이되었음해요
전국의김지은씨를위해
전민지

전보람
전선영
전선영
전세림
전소연
전수연
전영
전영민
전예은
전유나
전한솔
전혜빈
전혜진
전희진
정구원
정다정
정다혜
정대성
정대성

정동연
정명진
정미사
정민경
정민주
정민하
정민하
정보라
정새힘
정서영
정서현
정세리
정세연
정소양
정소영
정솔지
정숙영
정승원
정연숙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정영미	정진설	조류림	조윤성
정영애	정진아	조류림	조윤지
정영재	정해민	조미숙-힘내세요	조윤지
정영훈	정현수	조미영	조윤희
정예림	정현우	조민경	조은비
정유진	정현희	조민혜	조은비
정윤선&양하늘	정혜란	조부나	조은새
정은영	정혜윤	조선형	조은희
정의를실현해주세요	정혜진	조성운	조정빈
정이은숙	정혜진	조성희	조지혜
정일주	정호득	조세영	조현익
정재동	정호연	조세진	조형만
정재민	정효주	조소담	조혜련
정종숙	정희윤	조승란	조혜련
정주아	제발어떻게든이겨주세요	조아라	조혜진
정지연	제솔지	조연진	조효정
정지영	제현주	조영주	주다혜
정지원	조가은	조예슬	주아란
정진선	조류림	조예지	주현지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지미정	지지합니다	천준혜	최영수
지수	지지합니다	최고운	최예나
지수민	지지합니다	최누리	최예라
지은님과연대합니다	지지합니다	최다은	최예원
지은씨고마워요	지지합니다	최다은	최원택
지은씨늘응원해요	지지합니다	최다희	최유리
지은씨에게진빛	지지합니다	최명	최유선
지은씨해피뉴이어	지지합니다!	최민영	최유진
지은이의친구	지혜경	최민주	최윤아
지은이의친구	진명숙	최민지	최윤아
지주희	진유진	최사라	최윤정
지지와연대	진은영	최성아(올라탱고)	최윤주
지지합니다	차신애	최성혜	최은정
지지합니다	차연서	최수정	최자영
지지합니다	차현진	최수진	최재연
지지합니다	채정선	최아름	최재학
지지합니다	책과콩나물	최연수	최종수
지지합니다	천세은	최연주	최지수
지지합니다	천아름	최영	최지수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최지연	태희원	하지현	후원
최지영	토요시위화이팅	한미희	후원금
최지영	투쟁!기몽미리	한민영withyou	후원합니다
최지원	트랜스젠더여성	한민주	후원합니다
최지원	트이타입금파워단	한보경	후원합니다
최지은	표정선	한보경	후원합니다
최지호	피해자는일상으로	한솔아	후원합니다
최현희	피해자는일상으로	한승미	후원합니다
최혜린	피해자는일상으로	한승옥민주권리	희음
최혜영	피해자는일상으로	한아영	희정유죄
최혜원	피해자일상가해자감옥	한예은	힘내라김지은
최혜지	하나-끝까지연대	한용욱	힘내라힘
최호근	하성희	한유리	힘내서이기자
최희재	하순민	한유림	힘내세요
최희정	하승신	한은숙	힘내세요
최희진	하승주	한인혜	힘내세요
추헌송	하승지	한주연	힘내세요
축안희정구속	하은빈	황효진	힘내세요
쿠팡	하인혜	후원	힘내세요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이기세
힘내세요!이기세

힘내세요!이기세요
힘내세요!이기세요!
힘내세요!이기세요!
힘내세요!이기세요!
힘내세요!이기세요!

힘내세요!이기세요!
힘내세요!이기세요!
힘내십시오
힘내요
힘내요

힘내주세요
힘써주세요!!
힘이되길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

고맙습니다, 김지은의 편지

김 지 은 의 편 지

안녕하세요.

성폭력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함께 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더 큰 고통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 지 은 의 편 지

시작은 혼자였지만, 끝에는 수많은 선생님들과 함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고, 위력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면
모든 건 정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50여 일의 시간 뒤에 남겨진 건
막막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일상에 켜켜이 쌓인 먼지는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쉬이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흩뿌려진 거짓들은 쓰레기봉투에조차 잘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김 지 은 의 편 지

악성댓글로 운명을 달리하신 어느 유명 연예인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꼭 저의 부고 뉴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지만,
가해자의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심신의 미약으로 치료를 받으며,
오랜 기간 직장의 커리어가 끊긴 제가
돌아갈 곳이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생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두렵지만,
그래도 살아내고 싶습니다.

김 지 은 의 편 지

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오랜 세월 그 고통과 멸시를 이겨내어 세상을 바꾸셨 듯,
성폭력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고,
가해자의 잘못임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은 올림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남'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발언 ① 매이

안희정 성폭력사건 아카이브 운영진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아카이브] 계정을 운영해 온 매이입니다.

물론 계정은 저 혼자 운영한 것은 아니고 복수의 운영진들이 재판을 방청하고 기사를 올리면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진은 김지은 씨의 뉴스룸 출연 당시까지도 트위터에서 정치인 안희정을 지지하며 관련 소식을 전하는 [팀스틸버드]라는 계정을 함께 꾸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지지자였던 저희에게는 2018년 3월 5일은 충격적이고, 그래서 더욱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시 저희 중 몇이 텔레그램에 있던 [안희정 온라인 지지그룹 리더모임] 단톡방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 단톡방에서 뉴스룸 방영 직전에 누군가 언론사에 있는 지인에게 들었다고 ‘지사님 비서 성폭행이 보도된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물었죠.
‘지사님의 비서가 성폭행을 한 거냐’고요.

앞선 문장에서 가해자가 안희정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희정인데...

그는 남성중심 사회의 폭력성을 이야기 했고
페미니즘을 접한 뒤 젠더라는 와이드브라운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안희정의 범행일지를 따라가면서 저희에게 되살아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오랜만에 안희정의 서울 일정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 뮤지컬을 관람하고 제작진, 배우들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당시 [팀스틸버드] 운영진 몇명은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모여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켜봤습니다. 그 날 안희정에게 관객의 소감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족의 수난을 여성 캐릭터들이 겪는 고통, 그러니까 성폭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날의 젠더 감수성에 비추어 적절한 지 모르겠다.”

고요. 운영진 모두 감탄하고 박수를 치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바로 그 날, 안희정의 또다른 범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 뿐이었습니다.

저희 [팀스틸버드]는 일부 이견은 있었으나 설득과 합의를 거쳐서 3월 5일, 당일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계정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안희정 성폭력 사건 아카이브]를 열었습니다.

기사를 모아 올리는 게 주 목적이었지만 저희에게도 정보와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운영진들은 각자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월차를 써서 재판 방청도 갔습니다.

당시 많은 지지자들의 자기반성처럼, 안희정은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고, 때문에 지지자였던 저희는 여전히 김지은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로서 지은 씨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용기를 존경합니다.

물론 여전히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룸 보도 직후 지지그룹 리더 단독방에서도 그랬습니다. 안희정 측 인사는 ‘이제 대응논리를 세우면 된다’고 지지자들을 다독였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 이 분은 이후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는데요. 그 분은 안희정의 아내로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조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저희에게 알려오기도 했죠.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정치인 안희정이 말했던 가치는 그렇게 빨리 쉽게 버려졌습니다. 진짜 현실 정치란 이런 것인가, 환멸이 밀려들었습니다.

저희가 입장문을 냈을 때 ‘왜 양쪽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서두르느냐’고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더 많은 정보를 안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듯이.

하지만 그들이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아든 지금, 저희와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안희정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리고 법정 진술 내용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왜곡된 정보만 편향적으로 수집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폭력은 남자 앞길 막는 ‘여자문제’ 였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에 티 하나 았았을 뿐이라는 듯, 닦고 또 닦으면 별 것 아닐 흠이라는 듯이.

절망적인 건, 그 남은 지지자들만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의 영향 아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피해자의 걸음을 더욱 무겁고 더디게 만들 그런 종류의 통념입니다.

트위터의 [안희정 성폭력 사건 아카이브]는 주로 재판 진행을 기록했으므로 계정 자체의 효용은 얼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해자 한 사람 감옥에 보내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돌아올 일상이 어떤 풍경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김지은 씨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19. 11. 4(월)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6호선 망원역)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

안희정 위력·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짚으며
의미와 성과, 향후과제를 확인하고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세션1. 사건 속으로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